자가점유로 분석한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

The Impact of Divorce on Tenure Choice for Women in Korea

황재희*

Hwang, Jae-Hee

이성우**

Lee, Seong-Woo

Abstract

Present study investigates on the impact of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nure choice for divorced women in Korea. The authors utilize the micro data from the Korea Census (2% sample)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authors apply the bivariate probit model to eliminate selection bias that could incur due to sample selectivity, from a chain of marital disruption and tenure choices. This study starts with a descriptive explanation of homeownership after divorce from 1985 to 2005. It concluded that divorce results in a substantial attrition of homeownership. The authors found that out for many women, divorce initiates a process of downward mobility on the housing ladder. The probability to own housing is much lower for divorced women than for women who are not divorced. The present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divorced women who have limited access to housing stability. The authors also suggest some future studies that can compensate the empirical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Keywords : Divorced Women, Homeownership, Housing Stability, Bivariat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주요어 : 이혼여성, 자가점유, 주거안정성, 이변량프로비트모형

I. 서론

현대 사회의 가족 구성은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사안이다. 가족주의적 규범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가족 구성과 달리, 결혼과 출산에 의해 결정되는 현대 핵가족의 가족 구성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의 범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이라는 가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결된 부부관계는 그 형성과 해체가 보다 유연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이혼 선택을 다루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South & Spitze, 1986). 이혼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현재의 결혼생활이 주는 유인 대비, 이혼의 장벽 및 여타 대안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을 통해 이혼을 설명한다(Levinger, 1979). 인간관계는 관계맺음에 대한 유인과 관계해소의 장벽, 관계의 대안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는 가정은, 이혼 선택 과정의 사회심리학적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효용극대화 원리를 근거로 현재의 결혼생활과 다른 선택안들 간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학적 모형에 기초한다(Becker, Landes, & Michael, 1977; Becker, 1981). 모든 개인들은 경제적·사회적 성취에 대한 목표를 지니며, 목표달성에는 개인적

자원과 가족 형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다(Schoen et al., 2002). 각 개인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혼생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개인의 목표달성에 제약을 가하며, 가정의 유지가 상호 이득에 상충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근 20년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의 증가는 결혼생활 지속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유인이나 가족관계 유지를 통한 개인의 효용극대화보다, 이혼이라는 대안적 선택을 통한 행복추구의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성역할의 유연성과 중복이 요구되는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Oppenheimer, 1994),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제도적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에 익숙한 개인들이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상호 구속적인 부부관계에서 부적응이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 가운데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Byun et al., 2006).

Table 1. Total Number of Divorces and the Crude Divorce Rate for a Period of 20 Years

(Measure: 1,000 case, (per 1,000 people))					
	1985	1990	1995	2000	2005
Total divorce number	38,187	45,694	68,279	111,455	128,035
Crude divorce rate	(0.9)	(1.1)	(1.5)	(2.5)	(2.6)

Source: Statistics Korea, 「Dynamic Statistics of Population」

*정회원(주저자), 서울대학교 지역정보전공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지역정보전공 교수,
seonglee@snu.ac.kr

이혼의 증가는 결혼의 해체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연유로 주목해야 할 사회현상이다(Udry, 1967; Glick, 1975; Norton & Glick, 1976; Carter & Glick, 1976; Duncan & Hoffman, 1985; Arendell, 1987; Bumpass, 1990). 이혼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야기하는 원인은 네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 자녀부양의 의무는 이혼 후 여성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부양의 경제적 부담은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로 상쇄되지 않는다. 둘째, 여성의 노동여건을 제약하는 사회구조는 이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입을 감소시킨다. 셋째, 경제활동을 주도했던 배우자의 부재와 가족규모의 축소는 이혼여성 가구에 규모의 경제 손실을 유발한다. 넷째, 이혼여성은 취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이혼여성과 그 부양가족은 이혼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에 직면하며,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기인하는 일차적 문제는 상기 네 가지 항목이 지적하는 이혼여성 가구의 소득저하와 빈곤문제이다.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에 따른 빈곤화 문제는 이혼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게 삶의 방식 변화를 요구하는 생애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혼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들이 속한 사회조직에까지 확대된다(Espenshade, 1979). 남성에 비해 감정적 측면에 더욱 민감한 여성은 이혼 후 자기연민, 복수심, 우울, 상처받은 자존심, 분노 등의 복합적인 감정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이혼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가사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하며 더욱 심화되고, 이혼여성이 속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역할모델 또는 성적동일시 대상을 상실하고 생활환경 및 양육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자녀들은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Kim, 2011).

이혼여성과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 및 이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는 불안정한 주거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및 가족을 이루는 필요조건이다(Kim, 2010). 자가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가점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축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혼여성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자가점유 비율 차이는 일차적으로 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Ladenson, 1978; Duncan & Hoffman, 1985; Smith, 1990; Haurin & Kamara, 1991; Gandelman, 2008). 그러나 본 연구는 가구주의 소득과 재산에 의존하는 주택구매여력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 보장과 복지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자가점유는 개인에게 주택과 근린환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주거안정성은 개인과 사회 단위에 다방면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지닌다(Dietz,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여성 가구의 자가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다양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II장에서는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가점유,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을 다루는 선행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혼여성의 빈곤화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자가점유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주거안정성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한 후, 자가점유 접근에 대한 성차별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가점유를 통한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III장에서는 이혼에서 자가점유로 이어지는 순차적 선택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제시된 모형에 적용할 변수를 선정하였다. IV장은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원과 특성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이혼여성의 자가점유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마지막 V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여성 가구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증가라는 최근의 추세는 이혼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Espenshade, 1979; Mauldin, 1990; Braver, 1999; Yoon, 2004; Kim, Byun, & Yoon, 2008; Baker, 2009). 최근 20년간 전체 가구주 대비 여성가구주의 증가율 및 전체 여성가구주 대비 이혼여성 가구주의 증가율 추이는, 여성가구주의 증가에 이혼여성 가구주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The Rate of Women and Divorced Women who Head the Household for a Time Span of 20 Years*

(Measure: %)					
	1985	1990	1995	2000	2005
Women household head	15.7	15.7	16.6	18.5	21.9
Divorced women household head	4.3	5.6	7.1	11.6	14.4

Source: Statistics Korea, 「Korea Census」

Yoon(2004)은 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이혼 및 별거 이전에는 빈곤하지 않았던 여성이 가족해체로 인해 새롭게 빈곤층에 편입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혼여성 가족은 이혼에 따른 규모의 경제 손실로 인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보다 절망적인 경제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양육의 의무를 전담한 이혼여성은 자녀들과 그들의 소

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이혼 후 자녀부양의 의무는 여성에게 귀속되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경제상태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혼여성 가구의 빈곤화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혼과 여성의 빈곤화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가구소득의 변화, 소득구성의 변화, 직업관련 동향에 의존하고 있다(Weitzman, 1985; Duncan & Hoffman, 1985; Arendell, 1987; Bumpass, 1990; Braver, 1999; Yoon,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이혼 후 여성의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종사상의 지위가 낮은 직군에 근무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혼여성 가구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혼 후 여성의 빈곤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이 여성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함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Espenshade, 1979; Kim, Byun, & Yoon, 2008). 여성을 돌봄노동 전담자로 규정하는 가족 내 성별분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력을 평가절하하는 주요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 또한 결혼관계의 해체에 따라 노동시장에 새롭게 또는 재진입하여 생계부양과 돌봄노동의 이중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이혼여성들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직군은 낮은 소득 계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Kim, Byun, & Yoon, 2008).

그러나 불행한 결혼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혼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배리(Paradox)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Kim, Byun, & Yoo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경향이 여성의 소득과 직업의 변화에 주목한 여성의 빈곤화 연구에 치중되었음에 착안하여,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집중 분석하였다.

2. 자가점유와 주거안정성

자가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가점유는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개인, 가구, 근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Rossi & Weber, 1996; Rohe, Zandt, & McCarthy, 2001; Dietz, 2003;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2010). 자가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주의 빈도가 낮고, 동일한 이웃 및 지역사회와 장기 간의 교류를 맺는다. 이에 따라, 자가점유는 안정적 가정 생활, 자녀양육, 건강, 자산확보, 사회참여, 지방정치 참여, 환경보전, 범죄와 복지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개인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져다 주고, 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자가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ne & Kinsey, 1980;

Danes & Morris, 1986; Rossi & Weber, 1996; Rohe, Zandt, & McCarthy, 2001). 자가점유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들은 자가점유를 통해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자가점유는 세 가지 방면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자존감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영향을 받고, 자가점유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둘째,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보되고, 자가점유는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해당한다. 자존감은 자신의 행동에 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받고, 대다수 성인들의 목표인 자가점유는 목표달성에 대한 자존감과 관련된다. 이혼여성은 부부관계의 해체와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가점유가 경제활동의 중대한 목표로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자가점유는 이혼여성에게 성취감과 자존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만족과 행복의 감정, 자존감은 이혼여성에게 자립의 견고한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자가점유는 지역사회, 나아가 전 사회적 측면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한다(Dietz, 2003;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2010). 자가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성은 이웃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킨다(Rohe, Zandt, & McCarthy, 2001). 자가점유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Green & White, 1997; Aaronson, 2000; Harkness & Newman, 2003). 또한 자가점유자들은 정치와 시민사회 영역 등의 지역사회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Rossi & Weber, 1996; Rohe, Zandt, & McCarthy, 2001). 이러한 노력은 각 가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 편익은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나간다.

본 연구의 주거안정성 분석은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이라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소득 증대 방안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 틀에서 나아가, 이혼여성의 자립을 보조하는 심리적·사회적 기반 재조명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는 이혼여성 가구가 야기하는 개인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이혼여성의 자가점유

성별 및 혼인상태가 자가점유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Ladenson, 1978; Smith, 1990; Haurin et al., 1992; Bourassa, 1994; Gandelman, 2005; Munro & Smith, 2007; Gandelman, 2008; Hendershott et al., 2009). 이러한 연구는 여성가구주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착안하여, 여성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여주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주택 시장 진입에 있어 성별 또는 혼인상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자가점유에 대해 성별에 따른 진입장벽이 실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자가점유가 가구의 형성유형과 같은 내부적 구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사별, 별거, 이혼 또는 배우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구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한 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이혼여성 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혼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주거선택과 관련된 연구의 미흡은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이러한 연유로, 1985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여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원과 특성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성별 및 혼인상태와 자가점유 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항상소득, 재산, 이전비용, 보조금 수혜 가능성, 재혼으로 인한 소득 증대 가능성과 함께, 차가 비용 대비(對比) 자가점유에 요구되는 상대비용 등 가계를 대표하는 경제 변수를 활용하여 혼인상태와 성별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본 및 주택가격에 의존하는 주택구매여력보다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그것이 지니는 복지적 함의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기 언급하였듯, 자가점유의 기본요건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상응하는 소득과 재산의 보유이다. 그러나 해당 변수들은 자료구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입이 어려운 자산 확보의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경향과 이로 인한 빈약한 주택구매여력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본 연구는 정책적 지원으로 보완이 가능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 사회경제학적 · 지역적 특성과 자가점유 간 상관관계를 포착하였다.

III. 방법론 및 자료구축

1. 연구방법론

이혼은 개인의 선택에 기반한 부부관계의 해체이다. 따라서 이혼에는 개인의 선택에서 기인하는 자기선택성(Self-selectivity)이 내재되어 있다. 자가점유 또한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의지를 반영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자기선택성을 내재한다. 따라서 자가점유 선택과 함께, 이에 선행하는 이혼의 선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표본선택에 의한 편이가 발생하지 않는다(Lee et al., 2006; Berk, 198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택모형의 비관련 대안간 독립성(IIA) 가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분석기법으로 프로빗모형(Probit Regression Model)을 채택하였고, 두 단계에 걸친 순차적 선택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표본선택을 고려한 이변량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Regression Model with Sample Selection)으로 구체화하였다.

이혼여성의 자가점유 분석에 적용되는 이혼선택과 자가선택은 순차적 선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구 단위의 자

료를 활용한 이혼여성의 자가선택 분석은 외생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배우자와의 이혼 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자가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혼여성에 대한 자가점유의 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변량프로빗모형은 이러한 내생성의 유형을 반영해 준다(Greene, 1998; Montmarquette, Mahseredjian, & Houle, 2000). 이혼여성에 대한 자가점유 모형은 식(1)에 해당하는 이혼모형(Divorce Model)과 식(2)에 해당하는 자가모형(Homeownership Model), 두 개의 프로빗 회귀방정식으로 구성된다.

$$y_D = \beta'_D x_D + u_D \quad (1)$$

$$y_H = \beta'_H x_H + u_H \quad (2)$$

이혼모형의 교란항은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반면, 자가모형의 교란항은 전체여성 중 이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가모형이 이혼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가점유의 프로빗 회귀방정식은 전체 여성 중 이혼여성을 추출하는 확률과 관련된 설명변수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고 u_H 의 평균이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이혼여성의 자가여부와 설명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추론에 통계적 문제를 야기한다(Kaplan & Venezky, 1994). 종속변수의 표본 추출이 임의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표본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하게 되므로, 표본선택 모형에 부합하도록 교란항 u_D 와 u_H 의 평균, 분산, 공분산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고 y_D 가 1일 때만 y_H 와 x_H 가 관찰됨을 가정하였다.

$\sigma_{DH} \neq 0$ 이면 표본에 대한 모수의 회귀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y_H | x_H, y_D^* > 0) = \beta'_H x_H + E(u_H | x_H, y_D^* > 0) \quad (3)$$

$$= \beta'_H x_H + E(u_H | u_D > -\beta'_D x_D) \quad (4)$$

식(3)의 $E(u_H | x_H, y_D^* > 0)$ 은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E(u_H | u_D > -\beta'_D x_D) = \beta_\lambda \lambda \quad (5)$$

$\beta_\lambda = \sigma_{DH} / \sigma_D$ 일 때, 식(5)의 상수는 모수의 계수이고, λ 는 IMR^1 (Inverse Mill's Ratio)에 해당한다. 식(5)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식(3)은 임의표본선택이 아닐 경우에는 값을 도출할 수 없으며, 설명변수들을 포괄하는 교란항의 조건부 평균은 0이 아니다. 설명변수와 교란항 간 독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식(4)로 변형된 식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비(非)임의 표본선택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식(4)는 λ 통계량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y_H 의 방정식을 식(6)을 조건으로 하는 식(7)과 같은 표본회귀함수로 변형시킨다. 이에 따라, 교란항의 조건부 평균이 0이라는 가정을 만족하게 된다.

1) Wimmer & Chezum(2003)에 따르면, IMR 계수($\hat{\lambda}$)의 부호는 두 단계의 선택을 다루는 각 모형의 오차항 간 공분산(ρ)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공분산(ρ)값을 활용하여 단일 모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E(\tilde{u}_H | y_D^* > 0) = 0 \quad (6)$$

$$y_H | y_D^* > 0 = \beta'_H x_H + \beta_\lambda \hat{\lambda} + \tilde{u}_H \quad (7)$$

이렇게 구축된 이변량프로빗모형은 본 연구에서 이혼모형과 자가모형의 상이한 설명변수들 중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를 찾는 데 활용된다.

이변량프로빗모형을 구성하는 식(1)과 식(2)의 프로빗방정식 간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식(8) 및 식(9)와 같이 잠재변인 $Divorce^*$ 와 $Home^*$ 의 인과관계를 내재하는 구조방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Divorce^*_i = \beta'_1 x_i + \gamma'_1 z_{1i} + \delta_1 Home_i + \varepsilon_{1i} \quad (8)$$

$$Home^*_i = \beta'_2 x_i + \gamma'_2 z_{2i} + \delta_2 Divorce_i + \varepsilon_{2i} \quad (9)$$

$$Divorce = \begin{cases} 1, & Divorce^* > 0 \\ 0, & otherwise \end{cases} \quad Home = \begin{cases} 1, & Home^* > 0 \\ 0, & otherwise \end{cases}$$

- x, z_1, z_2 : 설명변수의 벡터, $\beta_1, \beta_2, \gamma_1, \gamma_2$: 모수의 벡터
- δ_1, δ_2 : 상수 모수, $\rho: \varepsilon_{1i}, \varepsilon_{2i} \sim N(0, 0, 1, 1, \rho)$

2. 자료구축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2% 자료를 사용하여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가점유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소득, 자산 및 주거비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다양한 관측치와 가구, 지역별 인구 및 주택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자가점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내재하는 자료로 판단된다(Jin, Kang, & Lee, 2010).

표본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파일설계서에 표기된 항목명을 기준으로, 성별은 여성,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및 이혼,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 및 차가(전·월세)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식(2)의 자가모형은 상기 표본을 기반으로 혼인상태가 이혼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집단만을 표본으로 갖는다.

이혼여성의 안정적인 주거 여부 파악에 활용되는 지표로는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된 자가점유율²⁾과 함께, 가구원 부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혼여성의 자원과 특성이 자가와 차가로 구분되는 주택의 점유형태 선택, 즉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명변수는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지역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 수를 채택하였다. 자가점유는 자본축적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Gandelman, 2005).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혼여성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서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를 통제하였다.

가구원 수는 이혼여성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의 가족 구성에서, 부양가구원 수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중 부양자녀 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여성 가구주가 부양해야 할 가구원 수는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병행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득 수준일 지라도 이혼여성 가구의 소비와 빈곤 수준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Byun et al., 2006). 게다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여성을 집중 배치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이 유지되고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이 미비한 한국사회의 경우 부양자녀는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Kim, Byun, & Yoon, 2008). 또한 가구원 구성이 단순한 형태의 이혼여성 가구주는 이동성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따라서 주거안정을 통한 가정생활의 안정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다. 재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주택 구매를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ourassa, 1994). 따라서 가구원 수를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 통제하였다.

사회경제학적 변수로는 이혼여성의 생활수준과 기회구조를 좌우할 것이라 예상되는 학력과 직업을 선정하였다. 교육수준과 직업은 이혼 후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게 되는 이혼여성 가구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후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며(Byun et al., 2006), 고학력 집단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혼모형에 적용될 변수로도 선정가능하다(Mott & Moore, 1978; Moore & Waite, 1981; Bahr et al., 1984). 이혼 후 재산 및 경험의 축적과 관련된 이혼경과년수 또한 주거안정성 증진과 직결되는 연유로 본 분석의 주요 변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는 여성 및 결혼을 주제로 한 패널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현존하는 해당 자료들은 표본수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혼여성의 주거 및 개인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군을 포괄적으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적 특성은 이주유형과 동/읍면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하였다. 상당수의 이혼여성은 이혼 후 이주 또는 비이주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하여 비이주, 같은 시군구 내의 이주, 다른 시군구로의 이주로 구분한 후 비이주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생활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이혼이라는 특성과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이혼여성에게 자가점유의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동/읍면 변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이혼과 이혼여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

2) 자가점유율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가구 중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자기 집'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니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다(Gandelman, 2005).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1) 변인별 기술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과 같으며, 각 변수의 수치는 이혼여성 가구주가 해당 변수 군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은 양적인 표본수의 증가와 함께, 1985부터 2005년까지 20~30% 사이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25~34세에 해당하는 젊은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은 1985년과 1990년 모두 18% 수준을 보였던 것에서, 1995년 13%, 2000년 11%, 2005년 8%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55~74세에 해당하는 고령층 이혼여성 가구주는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Divorced Women who Head the Household (Measure: <Samples>, %)

Year	1985	1990	1995	2000	2005
Sample size	<947>	<1,786>	<2,966>	<5,650>	<9,287>
Homeownership	28.1	22.7	23.5	22.9	27.6
Age¹⁾					
25-34	18.0	17.9	12.6	11.1	8.1
35-44	41.4	44.1	45.8	44.2	37.2
45-54	32.0	26.7	28.5	30.6	38.2
55-64	7.6	9.5	10.3	10.2	12.3
65-74	0.4	1.6	2.3	3.1	3.4
Household size					
1-2	43.0	68.2	71.6	69.2	67.7
3-4	45.8	28.2	26.7	29.3	30.8
5 and more	11.2	3.6	1.7	1.5	1.5
Education					
Without at least a high school diploma	43.0	65.1	58.8	49.6	38.7
High school graduates	45.8	29.5	34.1	41.8	49.1
College graduates	11.2	5.4	7.1	8.6	12.2
Job					
Professional/Supervisor	2.1	5.9	8.7	5.3	6.5
Office/Service staff	42.1	43.1	39.7	36.6	35.4
Agriculturist	4.8	2.1	1.3	0.7	0.8
Mechanic/Production employee	10.1	10.3	11.2	7.7	7.7
Others/Inoccupation	40.9	38.7	39.1	49.7	49.6
Migration					
Different district	29.4	34.4	32.4	29.8	24.3
Same district	41.8	40.1	49.1	43.8	47.7
None	28.8	25.5	18.5	26.4	28.0
Residential area					
Dong	90.8	90.8	92.5	91.6	90.2
Eup/Myun	9.2	9.2	7.5	8.4	9.8

1) note: Since divorced women under 25 years of age and more than 74 years age group who head the household are excluded from calculation, the sum of the age variables is less than 100.0.

1985년 약 7% 수준에서 1990년 11%, 1995년 12%, 2000년 13%, 2005년 16%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5~54세에 해당하는 장년층 이혼여성의 가구주 비율은 청년층과 고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장년층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은 1985년에서 2005년까지 70~7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 변화는 가구원 수가 적은 이혼여성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85년 43% 수준을 나타냈던 1~2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은 1990년 이후 60% 후반대로 급증하여 2005년까지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57% 수준을 나타냈던 3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은 1990년 이후 약 30%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절대적인 수치의 차이는 1990년을 전후하여 등장한 저출산에 따른 가구원 감소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독립가구의 증가가 이혼과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지목해 볼 수 있다.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은 고졸 미만~고졸의 학력을 소지한 집단에서 현저하게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 수치는 1985년 89%에서, 1990년 95%, 1995년 93%, 2000년 91%, 2005년 88%로 20년간 두드러진 증감 없이 유지되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 이혼여성의 비율 또한 1990년 5%로 감소하였을 뿐, 20년간 10% 내외로 유지되며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고학력 집단에 비해 고졸 미만~고졸 학력을 소지한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장년층과 고령층 여성의 인구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혼여성 가구주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에 걸쳐 35%에서 58%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노무/무직 직군의 경우는 1985년 41%에서 시작하여 2005년 50%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 변수의 경우, 5년 전 거주지와 동일 시군구로 이주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거나 이주하지 않은 이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동일 시군구로 이주한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이 1985년 42%에서, 1990년 40%, 1995년 49%, 2000년 44%, 2005년 48%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양상에 반해, 다른 시군구로 이주한 경우에는 1985년 29%에서, 1990년 34%, 1995년 32%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30%, 2005년 24%로 최근 들어 일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 등 가치관 및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를 반영하여 선정한 동/읍면 변수에서는 비교적 도시적 특성이 강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이혼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1985년 87%, 1990년 91%, 1995년 93%, 1996년 92%, 2005년 90% 수준으로 나타나 10% 내외를 유지하는 읍면 지역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전체 인구가 동 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동 지역 이혼여성의 절대적인 수치가 읍면 지역에 비해 많음에서 기인한다.

2) 변인별 자가점유율

각 변수에 해당하는 이혼여성 가구주 비율에 자가점유 여부를 반영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가점유율은 <Table 4>와 같다. 표를 통해 제시된 각 수치는 해당 변수에 포함되는 전체 이혼여성 가구주 중 자가를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³⁾.

연령대별 자가점유율의 경우, 자가소유는 일정 수준의 자본 축적을 전제하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점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명제를 반영하고 있다(Ladenson, 1978; Smith, 1990; Kim, 2010). 25~34세에 해당하는 젊

은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가점유 비율은 1985년 17% 수준에서 1990년 8%, 1995년 14%, 2000년 5%, 2005년 10%로, 약간의 증감 추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일정 직장생활 기간을 가질 것이라 추정되는 30대 세대주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주며, 젊은 가구주의 자가거주 포기 및 자가점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또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Kim, 2010). 35~54세에 해당하는 장년층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의 평균은 1985~2005년에 걸쳐 청년층에 비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난다. 55~74세의 고령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가점유율을 보인다. 다섯 시기의 고령층 자가점유율 평균은 30% 후반대에 주로 분포하며, 특히 65~74세 연령층에서는 1985년에 38%, 1990년 48%, 1995년 52%, 2000년 35%, 2005년 40%의 자가점유율 변동을 보였다.

2005년의 가구원 수에 따른 자가점유율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985년의 자가점유율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5년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이 1985년에 비해 0.5% 감소한 것에 근거하여,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가점유에 가구원 수의 영향이 점점 미미해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구원이 5명 이상인 이혼여성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85년 42%, 1990년 36%, 1995년 39%, 2000년 51%, 2005년 45%로 매 시기 큰 편동폭을 보이는데, 이는 대규모 가족 구성의 경우 자가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의 유인이 크게 작용하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혼여성 가구주의 교육수준 항목 중 대졸 이상에 해당하는 변수는 가장 높은 자가점유율을 보인다. 그 수치는 1985년 58%, 1990년 40%, 1995년 33%, 2000년 36%, 2005년 38%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 대졸 이상의 학력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감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혼여성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점유율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자가점유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은 대부분 근무지 근방의 농촌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농촌지역의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은 1985년 80%에서 2005년 71%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소득이 보장되고 주거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이라 예상되는 전문/관리직군의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은 1985에서 2005년에 걸쳐 농림수산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주유형의 경우, 비이주 이혼여성 가구주에게서 가장 높은 자가점유율이 나타났다. 한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

Table 4. Rate of Homeownership and the Variables Involved in the Study (Measure: <Samples>, %)

Year	1985	1990	1995	2000	2005
Sample size	<947>	<1,786>	<2,966>	<5,650>	<9,287>
Homeownership	28.1	22.7	23.4	22.8	27.6
Age					
25-34	16.7	8.1	13.6	5.3	10.2
35-44	21.8	15.1	13.5	14.3	17.5
45-54	29.3	24.4	22.2	22.1	26.5
55-64	38.8	31.2	36.2	35.0	36.1
65-74	38.1	47.8	51.7	34.7	40.4
Household size					
1-2	23.1	21.3	21.4	21.1	26.1
3-4	29.4	24.2	27.8	25.5	30.1
5 and more	41.5	35.9	39.2	50.6	44.9
Education					
Without at least a high school diploma	26.9	21.7	22.7	23.0	28.0
High school graduates	25.5	21.6	22.7	20.0	24.8
College graduates	57.5	39.6	33.0	35.5	37.8
Job					
Professional/Supervisor	50.0	28.3	19.7	37.3	38.5
Office/Service staff	22.3	16.6	18.6	19.3	25.1
Agriculturist	80.0	70.3	70.8	76.3	70.8
Mechanic/Production employee	18.8	12.0	16.6	16.6	25.2
Others/Inoccupation	29.1	28.8	27.1	24.1	27.7
Migration					
Different district	15.4	15.5	14.9	14.5	19.5
Same district	20.2	14.9	15.7	15.4	20.0
None	52.4	44.4	58.8	44.7	47.7
Residential area					
Dong	23.9	20.3	21.4	21.1	26.4
Eup/Myun	56.1	45.7	48.7	41.3	38.5

3) 예를 들어, 2005년 자료에서 25-34세에 해당하는 이혼여성 가구주 중 10%가 자가를 점유하고 있고, 35-44세에 해당하는 이혼여성 가구주 중에는 17.5%가 자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변수군에 해당하는 통계치들의 합계는 100.0이 아니다.

는 경우 근린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이전비용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이혼 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혼여성으로 이전한 경우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비이주 이혼여성 가구에서 자가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른 시군구로 이주하는 이혼여성 가구가 1985년 15%, 1990년 16%, 1995년 15%, 2000년 15%, 2005년 20%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동일 시군구로 이주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혼 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방식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이혼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해 볼 수 있다.

이혼여성의 직업별 자가점유율에서 농림수산업 직군의 자가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이유로,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1985년 32%, 1990년 25%, 1995년 27%, 2000년 20%, 2005년 12%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동 지역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 감소가 아닌, 읍면 지역의 자가점유율 감소에 의존하는데, 농촌지역의 주택시장 진입 또한 점차 어려워지는 것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이혼모형과 자가모형을 모두 고려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⁴⁾을 통해 1985년부터 2005년 사이 5개년 단위로 이혼여성의 자가점유를 분석한 결과, rho값이 다섯 시기의 자료에서 모두 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은 자가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1985년과 2005년에 로, 2000년에 수준으로 확보되었다. <Table 5>⁵⁾는 회귀분석 결과와 주어진 설명변수 값에 대한 확률의 예측치를 나타낸다.

상기 분석결과는 지난 20년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년 분석모형에서 나타난 자가점유와 이혼여성의 자원 및 특성 간 부(-)의 영향관계라는 큰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혼여성의 미약한 주거안정성 기반이 특정 연도의 시기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해 제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가점유와 이혼여성의 특징 간 영향관계 간 구조적 특성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가점유에 불리한 특성을 지닌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 보조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25~34세에 해당하는 젊은 이혼여성은 자가점유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이다. 이는 취업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소득 증대의 기회가 감소하는 경제적 현황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able 4>의 자가점유율 통계가 보여주는 25~34세 이혼여성의 자가점유율 감소 경향을 통해, 청년층 이혼여성 가구주와 자가점유가 부(-)의 관계를 지니는 것은 소득 확보 문제와 더불어, 자가점유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젊은 이혼여성 가구주는 생애주기의 특성상 재혼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개방적일 것이며, 주택의 의미에 대한 가치관은 자가점유를 인생의 목표로 재산을 축적하던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다. 특히, 원활한 이동 가능성이 개인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이혼여성 가구주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통한 소속감보다 이동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55~64세에 해당하는 고령층 이혼여성 가구주가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자가점유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점유는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생애주기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취향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책의 증대 또한 55~64세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자가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및 자녀세대와의 세대 분화를 통한 고령층 독립가구의 증가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Kim, 2010).

가구원 수는 이혼여성 가구의 자가점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자가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 기반의 직관적 해석뿐만 아니라, 가구원 구성이 단순한 형태의 이혼여성 가구주는 자가점유를 통한 정착보다 이동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Bourassa, 1994). 즉, 적은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혼여성 가구는 자가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에 비해,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한 생활방식 및 구직의 유연성 확보에 대한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여성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자가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졸 미만의 학력을 소지한 집단이 자가점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은 자가점유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진입과 종사상의 지위가 높은 직급 취득에 용이할 것이기에, 소득의 증대와 그에 상응하는 삶의 질, 주거안정성 확보에 대한 욕구가 고학력 이혼여성 가구주 집단의 자가점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직업 변수의 경우, 농림수산업 직종은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가점유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는 <Table 4>

4) 구축된 모형의 유의성은 설명변수를 평균조건으로 통제한 후의 자가점유 확률과 실제 관측치가 나타내는 자가점유 확률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본 모형의 설명변수들이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보여주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5) <Table 5>는 변인별 자가점유율은 나타내는 <Table 4>와의 연계 해석으로 이혼여성 가구주의 자원과 특징에 따른 자가점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Table 5. Homeownership Analysis Results of Divorced Women who Head the Household

	1985			1990			1995			2000			2005		
	Divorce	Homeownership		Divorce	Homeownership		Divorce	Homeownership		Divorce	Homeownership		Divorce	Homeownership	
Intercept	-3.7021***	2.2382***		-3.8027***	1.3990***		-3.4363***	1.3582***		-2.9692***	0.6190**		-2.7391***	0.9644***	
Age															
25-34	0.3776***	-0.0875		0.4407***	-0.8358***		0.1818***	-0.6182***		0.1507***	-0.5611***		0.2403***	-0.6131***	
35-44	0.8810***	-0.2740		0.9944***	-0.7275***		0.7291***	-0.5168***		0.6412***	-0.3387***		0.7385***	-0.5589***	
45-54	0.6704***	-0.0662		0.4461***	-0.4054		0.2911***	-0.1743		0.2614***	0.0184		0.4211***	-0.1405*	
55-64	0.4550***	0.0142		0.2274***	-0.1974		0.0782	0.1678		0.0241***	0.1668		0.1795***	0.1393*	
Household size															
3-4		0.3462***			0.2007**			0.4070***			0.1941***			0.2629***	
5 and more		0.5739***			0.4417**			0.5072**			0.8292***			0.6782***	
Education															
Without at least a high school diploma	-0.0693**	-0.1930*		0.0688***	-0.2816***		0.0725***	-0.2539***		0.0820***	-0.1837**		0.0586***	-0.1994***	
College graduates	-0.1312**	0.7989***		-0.1954***	0.4392***		-0.2198***	0.2333**		-0.3034***	0.4484*		-0.3625***	0.4478***	
Job															
Professional/Supervisor	0.4364***	-0.1801		0.5371***	-0.1076		0.4235***	0.0008		0.3047***	0.3186*		0.3257***	0.1648**	
Service staff/Office job	0.8085***	-0.6232***		0.8459***	-0.4414***		0.2527***	-0.3528*		0.4223***	-0.0327*		0.4051***	-0.0918**	
Agriculturist	-0.2483	0.7940***		-0.3983***	0.7288***		-1.3103***	1.7874***		-0.9013***	1.0208		-0.9263***	1.0488***	
Mechanic/Production employee	0.7285	-0.4196**		0.5539***	-0.5352***		1.1692***	-1.7980***		0.2219***	-0.1520*		0.2154***	-0.0228	
Teenage children															
None	0.6425***			1.1681***			1.0569***			0.9172***			0.7690***		
1	0.6190***			0.5713***			0.5696***			0.5609***			0.4939***		
Migration															
Different district		-0.8510***			-0.7318***			-1.0325***			-0.8460*			-0.6981***	
Same district		-0.6675***			-0.7597***			-1.0243***			-0.7948**			-0.6782***	
Residential area															
Dong		-0.6262***			-0.5127***			-0.5283***			-0.5510*			-0.2809***	
Region															
7 metropolitan city	0.1141***			0.1215***			0.1031***			0.1088***			0.0863***		
Gangwon	-0.0582			-0.0846			-0.0698			-0.0982**			-0.0474		
Chungcheong	-0.2552***			-0.1602***			-0.1511***			-0.1276***			-0.1126***		
Gyongsang	-0.0878			-0.1431***			-0.0864***			-0.0735***			-0.1076***		
Jeolla/Jeju	0.0557			-0.0312			-0.0447			-0.0536*			-0.0703***		
rho		-0.5686***			-0.1371			-0.1414			-0.0849*			-0.3121***	
N	181,969	947		161,241	1,786		184,652	2,966		197,412	5,650		210,850	9,287	
-2LL	10,916			17,304			28,156			50,692			78,464		

* p<0.1, ** p<0.05, *** p<0.01

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지역의 낮은 주택가격과 이혼여성의 자립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는 직종의 특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무/서비스직과 기능/생산직에 종사하는 이혼여성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가점유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이들 직군은 여전히 자가점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혼여성이 저임금 직군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이혼 이전의 결혼생활이 여성의 성별 분업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혼생활 동안 여성은 자신의 자본을 재생산 노동에 투여해 재생산과 관련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성별분업에 근거한 결혼관계가 해체되는 경우, 여성이 축적한 재생산과 관련된 인적자본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yun et al., 2006).

사회경제학적 변수군에 해당하는 학력과 직업의 분석결과는 저학력, 노동시장 내 주변부 직급에 분포해 있는 이혼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시군구 또는 동일 시군구로의 이주는 모두 자가점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다른 시군구로 이주하는 여성에게 자가점유에 대한 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여성의 이주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자가점유 경향은 자가점유와 직업선택에 따른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에 더해(Chun & Lee, 2007),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이혼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에 근거하여(Chun & Lee, 2007),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가구 및 이혼여성 가구의 이주와 자가점유 간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또 다른 지역변수인 동 지역 변수는 자가점유에 대해 부(-)의 영향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주변부 직종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Byun et al., 2006), 읍면 지역에 비해 농촌성이 덜한 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자가점유에 높은 접근장벽이 존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한국의 가족구조는 형태와 내용면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혼을 통한 결혼관계의 해소는 사회심리학적·경제학적 유인과 장벽을 고려한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원획득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결혼관계의 해소는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Byun, & Yoon, 2008). 이혼여성의 빈곤화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혼을 선택한 여성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초래하며, 이혼 여성과 자녀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한다. 자가거주는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가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는 이혼여성 가구에서 파생되는 개인 및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이혼과 자가점유의 선택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혼선택에서 자가선택으로 연결되는 순차적 선택과정의 표본선택편의를 보정한 이변량프로빗모형을 활용하였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 자가점유를 통한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의 상승과 직업상의 성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 전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Byun et al., 2006),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 확대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혼의 증가로 인해 이혼여성의 빈곤화는 하나의 현상으로 고착화되었고, 주거안정성 확보에 결정요인이 되는 자가점유율의 증감은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아닌, 주택시장 동향에 의존할 뿐이었다. 자가점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이혼여성의 자원 및 특성은 자가점유에 대한 차별요인이라 할 수 있고, 분석결과 이러한 차별요인은 연령, 학력, 직업, 이주, 도시거주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지난 20년간 미미한 개선을 동반했을 뿐, 현저한 개선 없이 자가점유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여성의 자가점유 진입에 장애가 되는 차별요인들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혼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는 모자가정의 입주 기회를 명시하고 있는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이 존재할 뿐이며,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건축 중단 이후 2009년에 이르러서야 건축이 재개된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의 증가와 동반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보다 중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이혼여성 자가점유 분석결과는 청장년층, 저학력, 사무/서비스직과 기능/생산직의 주변부 직종 근무자, 이주 선택, 도시거주자 집단에서 자가점유에 대한 장벽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청장년층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자가점유에 요구되는 재산축적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서비스 지원 우선권에 자산 및 소득, 가구원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연령대의 이혼여성 또한 하나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임대는 자가점유와는 다른 개념임이 분명하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축적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 이혼여성 가구의 접근성이 높으며, 임대기간 또한 이혼여성 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저학력자

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은 한국의 학력에 대한 민감도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저학력 이혼여성 가구주의 취업여부를 파악하여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자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로서 생계비 및 자립금 지원을 증대시키는 등 지불능력 보조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부 직종 근무에 따른 지불능력 확보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문제의 해결을 보조하기 위해, 이혼여성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의 부침이 심한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상기 언급했던 직업훈련 등과 함께, 이혼 후 노동시장에 새롭게 또는 재진입하려는 여성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의 정책적 혜택을 주는 것은, 이혼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취업과 직장생활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자가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거주 이혼여성들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정책은 주택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이 시급한 이혼여성의 수요를 반영하는 선에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가족해체가 야기하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들은 이혼이 개인을 위한, 나아가 각 개인이 속한 사회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체계는, 해당 가족구성원들의 생애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한 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성 보장을 통해 이혼여성의 자립 기반을 보조해야 한다.

본 연구가 이혼여성의 자가점유 분석을 통해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주거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가 아닌 근린생활 네트워크 형성 정도(Temkin & Rohe, 1998) 또는 장기임대비용보조(Anderson et al., 2002) 등의 공공부조 수혜 여부를 포함하여 주거안정성을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기 변수가 설문지 및 면접법을 활용한 1차 자료나 상당수의 표본 및 변수를 포괄하는 여타 패널자료를 통해 구축 가능하다는 점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한계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혼여성의 낮은 자가점유 비율은 비단 이혼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이 야기하는 가족해체의 사회적 한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혼자 부부, 이혼남성의 자가점유와 비교하여 이혼 후의 주거안정성 약화가 이혼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가구주 가구 형성 원인에 따라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 미혼모 가구주 등 주거안정성 확보에 이혼여성 가구주와 유사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집단의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분석을 통해 자가점유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설명변수들은 시기 변화와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각기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는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과 그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REFERENCES

1. Aaronson, D. (2000). A note on the benefits of homeownership. *Journal of Urban Economics*, 47(3), 356-369.
2. Anderson, T., Shannon, C., Schyb, I., & Goldstein, P. (2002). Welfare reform & housing: Assessing the impact to substance abusers. *Journal of Drug Issues*, 2002(Winter), 265-294.
3. Arendell, T. (1987). Women & the economics of divorce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Women &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13(1), 121-135.
4. Bahr, S., & Galligan, R. (1984). Teenage marriage and marital stability. *Youth and Society*, 15, 387-400.
5. Baker, M. (2009). The 'Quintessential Problem Debtor': Mother-Led Households in Economic Hard Times. Australian Social Policy conference 2009.
6.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7. Becker, G., Landes, E., & Michael, R. (1977).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141-87.
8. Berk, R. (1983). An introduction to sample selection bias in sociologica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3), 368-398.
9. Bourassa, C. (1994). Immigration and housing tenure choice in Australia. *Journal of Housing Research*, 5(1), 117-137.
10. Braver, S. (1999). The gender gap in standard of living after divorce: Vanishingly small?. *Family Law Quarterly*, 33(1), 111-134.
11. Bumpass, L. (1990).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 institutional change. *Demography*, 27, 483-98.
12. Byun, H., Kim, H., Yoon, H., & Han, J. (2006). *The Study on Socioeconomic Status Change of Divorced Women*. Research paper (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3. Carter, H., & Glick, P. (1976). *Marriage & Divorce: A Social and Economic Study*, Oxford (England): Harvard U. Press.
14. Chun, J., & Lee,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migration history on tenure choice: Focusing on the determinants and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typology and housing choi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6), 651-673.
15. Danes, S., & Morris, E. (1976). Housing status, housing expenditure and satisfaction. *Housing and Society*, 13, 32-43.
16. Dietz, R. (2003). *The Social Consequences of Homeownership*, Research paper, Homeownership Alliance.
17. Duncan, G., & Hoffman, S. (1985). A re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22(4), 485-497.

18. Espenshade, T. (1979).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3), 615-625.
19. Gandelman, N. (2005). *Homeownership and gender*.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00354#sf.
20. Gandelman, N. (2008). *Female-Headed Households and Homeownership in Latin America*, (R)-547,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s of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1. Glick, P. (1975). A demographer looks at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1), 15-26.
22. Green, R., & White, M. (1997). Measuring the benefits of homeownership: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1(3), 441-461.
23. Greene, W. (1998). Gender economics courses in liberal arts colleges: Further result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9(4), 291-300.
24. Harkness, J., & Newman, S. (2003). Effects of homeownership on children: The role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family income. *Economic Policy Review*, 9(2), 97-107.
25. Haurin, D., & Kamara, D. (1992). The homeownership decis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4), 293-309.
26. Hendershott, P., Ong, R., Wood, G., & Flatau, P. (2009). Marital history & home ownership: Evidence from Australia.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8(2009), 13-24.
27. Jin, H., Kang, D., & Lee, S. (2010). Changes in Housing Tenure Rates & Housing Tenure Propens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between 1995 & 2005.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66(2010.9), 73-91.
28. Kaplan, D., & Venezky, R. (1994). Literacy and voting behavior: A bivariat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3(4), 350-367.
29. Kim, H., Byun, H., & Yoon, H. (2008). Women's divorce and poverty: Focusing on the changes in occupations and incomes. *Family & Culture*, 20(2), 37-63.
30. Kim, L. (2010). A study in change of residence stability through analyzing homeownership rate: A case study in Seoul, Republic of Korea, 1985~2005. *Seoul Studies*, 11(1), 43-59.
31. Kim, S. (2011). Articles: Recent Divorce Trend & Policy for the Divorce in Korea. *Korean Studies*, 45, 61-90.
32. Ladenson, M. (1978). Race and sex discrimination in housing: The evidence from probabilities of homeownership. *Southern Economic Journal*, 45(2), 559-575.
33. Lane, S., & Kinsey, J. (1980). Housing tenure status &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 341-365.
34. Lee, S., Yoon, S., Park, J., & Min, S. (2006). *Applied Spatial Econometrics Model*. Pakyoungsa.
35. Levinger, G. (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21-47.
36. Mauldin, T. (1990). Women who remain above the poverty level in divorce: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y," *Family Relations*, 39(2), 141-146.
37. Montmarquette, C., Mahseredjian, S., & Houle, R. (2000).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dropouts: a bivariate probability model with sample selec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0, 475-484.
38. Moore, K., & Waite, L. (1981). Marital dissolution, early motherhood and early marriage. *Social Forces*, 60(1), 20-40.
39. Mott, F., & Moore, S. (1978). The causes & consequences of marital breakdown. *Women, work and family*, 113-135.
40. Munro, M., & Smith, S. (2007). Gender and housing: Broadening the debate. *Housing Studies*, 4(1), 3-17.
41. Norton, J., & Glick, P. (1976). Marital instability: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5-20.
42. Oppenheimer, V. (1994). Women's rising employment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industri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 293-342.
43. Research Divis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2010). *Social Benefits of Homeownership and Stable Housing*.
44. Rohe, W., Zandt, S., & McCarthy, G. (2001). *The Social Benefits and Costs of Homeownership: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Research*, (LIHO)-01.12., Low-Income Homeownership Working Paper Series.
45. Rossi, P., & Weber, E. (1996). The social benefits of homeownership: empirical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Housing Policy Debate*, 7(1), 1-35.
46. Schoen, R., Astone, N., Rothert, K., Standish, J., & Kim, Y. (2002). Women's employment,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Social Forces*, 81(2), 643-662.
47. Smith, S. (1990). Income, housing wealth and gender inequality. *Urban Studies*, 27(1), 67-88.
48. South, S., & Spitze, G. (1986).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583-590.
49. Temkin, K., & Rohe, W. (1998). Social capital and neighborhood sta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Housing Policy Debate*, 9(1), 61-88.
50. Udry, J. (1967). Marital instability by race and income based on 1960 census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6), 673-674.
51. Weitzman, L. (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 Free Press.
52. Wimmer, B., & Chezum, B. (2003).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in a lemons market. *Economic Inquiry*, 41(2), 279-291.
53. Yoon, H. (2004). The role of public & private income transfers to the income status of women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56(2), 5-27.

접수일(2011. 11. 25)

수정일(1차: 2012. 1. 12)

게재확정일자(2012. 1. 25)